

3GPP 제38차 PCG 및 제37차 OP 국제회의

이근구 TTA 표준화본부장
이혜영 TTA 표준화본부 책임



1. 머리말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1998년 12월, 한국, 유럽, 일본, 미국, 중국의 표준화기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이동통신 표준화 추진을 위해 설립되어, WCDMA, HSPA, LTE, LTE-Advanced 등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동통신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현재는 TTA를 비롯한 총 7개 표준화기관(TTA(한국)¹⁾, ETSI(유럽), ATIS(미국), ARIB/TTC(일본), CCSA(중국), TSDSI(인도)) 소속 이동통신 사업자, 제조업체 등 약 500여 업체가 참여하여 5G 이동통신 기술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3GPP는 최상위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조정위원회(PCG, Project Coordination Group)²⁾와 3GPP 재정 사항과 활동 범위를 승인하는 기관참가자(OP, Organizational Partner) 회의를 연 2회(4월, 10월) 개최하고 있다.

금번 3GPP 제38차 PCG 및 제37차 OP 회의는 2017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양일간 미국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PCG 부의장인 TTA 이근구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국내 회원사 대표가 참석하여 3GPP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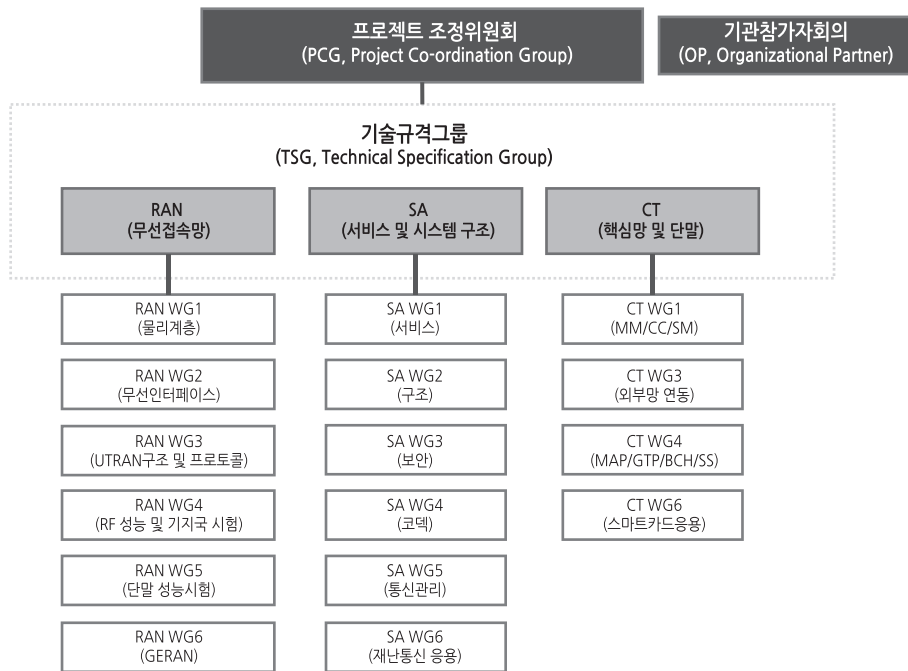
2. 주요 회의 내용

2.1 프로젝트조정위원회(PCG)

이번 PCG 회의에서는 지난 제37차 PCG 회의에서 결정된 5G 명칭에 대한 로고 개발 및 사용 현황이 보고되었다. 3GPP는 Release 15부터 개발되는 표준을 ‘5G’로 명명하기로 하고 [그림 2]의 로고를 Release 15 이후 모든 기술규격 및 기술보고서에 적

1) TTA 소속 3GPP 참여업체: 노키아코리아, 대구테크노파크모바일융합센터(MTCC), 삼성전자, 아이티엘, SKT, 에릭슨-LG, LGUplus, LG전자, 월러스표준기술연구소, 인터디지탈아시아, 인텔코리아, 철도기술연구원, KT, 한국산업기술원(KTL),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셀콤, 한성대학교 (가나다 순)

2) PCG 산하에는 기술규격 작업을 위해 3개의 기술총회(또는 기술규격그룹, TSG,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이하 TSG라 함) 조직을 두고 있으며, 각 기술총회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산하에 기술규격 작업을 위한 개별 작업반이 있다. 각 개별 작업반은 연 6~8회 이상 개최된다.



[그림 1] 3GPP 표준화 조직



[그림 2] 3GPP 5G 로고

용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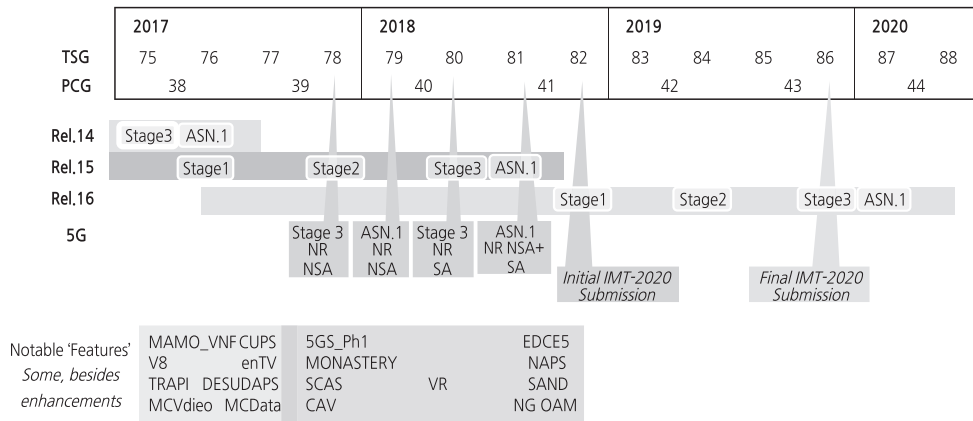
또한, 지난 3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선출된 기술총회(TSG) 의장단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SA 의장으로 삼성전자의 Erik Guttman 이, SA 부의장으로 LG전자의 김래영 수석이 선임되어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년간 의장단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3GPP의 5G 기술규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국내 회원사의 의장단 진출이 성공함으로서 5G 표준화 작업 시 국내 업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활발한 기술 반영이 이

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SA 기술총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개최된 기술총회에서 결정된 5G 기술규격(Rel.15 및 Rel.16) 작업을 위한 표준화 일정 보고가 진행되었다.

[그림 3]의 일정은 5G 조기 상용화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 Rel.15 기술규격 작업 일정 내에 LTE 핵심망과 5G 무선망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on-StandAlone) 기술규격은 2017년 12월까지 먼저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에 국내 이동사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이를 통한 국내 산업계의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끝으로 ‘3GPP 공로상(3GPP Lifetime Achievement Award)’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매년 4월 PCG 회의에서 3GPP 표준화 활동에 크게 기여한 참가자 1인을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상자 선



[그림 3] 3GPP 5G 기술규격(Rel.15 및 Rel.16) 표준화 추진 일정

정을 위한 평가위원은 기술총회 의장, PCG 의장 및 부의장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최초 수상자는 올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될 차기 PCG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2 기관참가자(OP) 회의

이번 OP 회의에서는 3GPP 재정그룹(FFG)이 제출한 제40차 FFG 회의결과 보고를 승인하고, 2017년도 3GPP 총 예산 및 각 OP별 분담금을 최종 확정하였다. 2017년도 3GPP 전체 예산안은 5,127 kEUR로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그에 따른 TTA 분담금은 총 17개사 회원사에 비례하여 책정되었다.

또한, 신규 시장대표참가자(Market Representation Partner)로 5G 자동차 협회(5GAA)의 가입이 승인되었다. 5GAA는 2016년 9월 독일 자동차 3사(BMW, 벤츠, 아우디) 및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주축으로 결성되었으며 현재 국내 업체로 SKT, 삼성전자, LG전자, KT가 활동하고 있다. 5GAA는 셀룰러 기반의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량 연구를 추진하며 특히 3GPP V2X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을 수행 중이다.

5GAA의 MRP 가입을 통해 3GPP와 타 산업간 융합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맺음말

3GPP는 지난 3월 기술총회에서 5G 신규 무선접속(NR) 기술규격을 위한 작업항목들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표준 기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5G 신규 핵심망 아키텍처 및 프로시저 표준화도 201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5G 표준화에 대한 산업계의 큰 관심을 보여주듯 현재 3GPP는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3GPP 정책 운영에 대한 최상위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PCG 및 OP 회의 대응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TTA는 3GPP의 5G 표준화 정책, 시장 활성화 등에 국내 회원사 의견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차기 PCG 및 OP 회의는 2017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oneM2M 운영위원회(SC), 세계표준협력회의(GSC)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